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권 18:3)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교회 사서실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조진근

천국일꾼 양성

'99 하반기 장학금 수여

복음의 빛으로 시대를 밝히는 일꾼되길

찬양예배시 수여식 ·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지급

99년도 하반기 장학금 선발이 완료되었다. 선발된 학생은 전액장학생 12명, 일반장학생 167명 및 목사후보생 15명 등 총 194명이며, 장학금 지급총액은 1억3천8백63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1999년도 전후반기 장학금은 총 398명에 장학금은 2억7천5백53여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금년에 선발된 장학생 중에는 전액장학생 4명이 추가로 선발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전액장학생 후보자 20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공동체훈련 및 개인 경진생활 등을 통해 선발된 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매우 기도도모일과 지속적인 영성훈련 등을 통해서 꾸준히 열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예정이다.

성도들은 모든 충현의 장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시고 사용하시는 천국일꾼들로 잘 자라가도록,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적절하게 장학금이 돌아가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하겠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찬양예배시에 있게 되며, 장학증서 전달 및 약정서 서약(장학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가. 전액장학생: 12명

김병진 오용진 손에스터 정은주 최미영 고병석 권영일 이성혜 염태산 장상원 오지명 정안나

나. 일반장학생: 167명

1) 대학원생: 11명

이수경 김지현 박미애 박유화 신향현 이종필 김은영 박창성 송상희 류 정 윤세영

2) 대학생: 86명

강진수 정미현 이복순 이민욱 이은정 안의정 신민주 정은실 정은영 조상희 조수진 최승자 최진주 한미현 황성진 이수진 이재욱 이주영 이찬주 채경환 이충규 이태훈 이혜숙 임우영 전보은 전영진 정경숙 박정숙 최인숙 박효열 백경희 송신기 수버드라 신준성 안지영 양찬호 엄소연 오경희 유종규 윤삼열 윤지원 윤혜선

윤 회 이선민 이수은 기윤영 김경중 김성운 김송남 김아론 김영진 김은경 박은영 김지이 김지혜 김현경 남미희 남지연 남하정 박선희 이평희 이옥주 박순용 조혜영 최은진 신장훈 이민형 이석훈 강은영 김도명 김명정 김의진 김성애 박분희 박창래 최은아 허민성 문수아 박순미 이성훈 박정숙 최은아 김귀숙 김민철 김해진 이숙향 김준연 오빛나 구본창 박하얀 김시화 오대석 강승연 김희재 김지호 이옥조 이하나 장태영 황유화 정국용 김지연 유원주 지은경 이미희 이기연 이효정 이은혜 김진영 지은경 김성애 박창래 박진호 변은경 권명순 김희정 조은진 박영진 김귀숙 김유승 우성민 임병한 정지호 조정은 기원삼 김유승

3) 고등학교생: 36명

한영아 윤지현 김문철 김민서 김선영 박미영 염혜실 유민석 이다정 이서재 최 웅 김하림 김윤경 김소연 이 석 함용규 이태호 이동수 민은식 이대복 유원정 유승규 서영은 이동수 민용학 김현호 김경석 김기현 전해영 김정훈 김희숙 안성호 김지옥 유태욱

4) 중학생: 34명

김문철 김민서 김선영 박미영 염혜실 유민석 이다정 이서재 최 웅 김하림 김윤경 김소연 이 석 함용규 이태호 이동수 민은식 이대복 유원정 유승규 서영은 이동수 민용학 김현호 김경석 김기현 전해영 김정훈 김희숙 안성호 김지옥 유태욱

다. 목사후보생: 15명

김봉현 조옥자 김영기 이종태 김윤식 허용구 송원식 조재민 김일승 이정철 유성렬 이삼열 김성경 신가경 박태양

교정전도회 수련회 가저

교도소 전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수감자들에게 맘 홀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정전도회가 9월 9일(목) 포천군 일대에 수련회를 가졌다. 금번 수련회는 교정전도회 사립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전도 및 영성강화훈련, 기도회, 교정전도사업 평가회 및 내년도 사업 계획 및 방향 협의와 전교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터키 지진 피해 복구 지원키로

봉사위원회는 터키 지진 피해 복구 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당회의 결정을 거쳐 미화 5천불을 터키 내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터키 난민들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터키 당국자들의 마음을 열어 선교사들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성도들은 중보의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태에 성도의 사명을 다하여 예수 사랑의 빛을 밝히야 하겠다.

단기선교사역지 추가

1999-2000년 겨울 단기선교 사역지들에 스리랑카 및 우간다가 추가되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우간다 단기선교단은 9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역하게 되며, 선교단원들은 선교연구원(LMTC) 훈련의 해와훈련과정으로 현지자를 만나게 된다.

선교지 지원물품을 기다립니다

성경학교 사역, 젊은이 사역, 초등학교 사역 등을 통해 아름다운 선교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수단에서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아래의 물품들을 긴급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물품: 종고 PC(486급) 30대 이상, 종고 재봉틀 5대 이상

자세한 사항들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 구내전화 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인사

박종화 전도사가 개인사정으로 8월 31일부로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계선와 전도사가 청빙되었다. 계 전도사는 91년 12월부터 97년 7월까지 본 교회에서 심방전도사 및 유아부 지도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본 교회 선교부보장으로 사역 중이던 민병환, 오태규 전도사는 선교전도사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현재 외선부 물품팀과 스리랑카팀에서 각각 사역 중이다.



계선와 전도사



민병환 전도사



오태규 전도사

'몽골어 성경' 제작키로

교회는 몽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몽골어 성경' 5천부를 제작키로 하였다. 금번 몽골어 성경 제작은 지난 여름 몽골 단기선교단의 현지방문시 몽골 성서공회로부터 몽골어 신약성서 판권을 받아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작은 대한성서공회에 의뢰하기로 하였다.

동서울노회 제56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성도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목사고시 청원 (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2.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3. 전도사 고시 청원
4. 목사후보생 고시 청원 (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예정자)
5. 신학계속 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제출 마감: 1999년 9월 17일(금)까지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과(563-2339)

금주의 영성훈련

9월 14일(화) - 1교구

9월 16일(목) - 2교구



김정인 목사

바벨론의 교만과 무지

(이사야 47:8-15)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여 자녀를 잉여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이다 한 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바벨론은 교만하고 무지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여 망하게 됩니다.

1. 바벨론의 형편

(1) 바벨론은 교만하였습나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8절)

바벨론은 강한 군대를 양성하여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여 권세와 군사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당당하였습나다. 정복하는 나라에서 무수한 보배들과 은금보화와 골동품들을 실어 왔습나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위장찬란한 전리품들을 진열해 놓고 살았습나다. 또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였고 그 중에서 똑똑하고 잘 생긴 청년들은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렸습나다. 이리하여 바벨론 백성은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예쁜 옷을 화려하게 입고도 시간이 남으니가 모여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음란하여 생활이 말할 수 없이 더러워졌습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성이 없고 잔인하였습나다. 포로로 잡아가다 길을 시키던 젊은이들이 약하여 병이 들면 약을 써서 고쳐 주려고 하지 않고 의만 곳으로 끌고 가서 슬그머니 죽여버렸습나다. 사람의 생명을 짐승 취급하듯 하였습나다.

(2) 마음이 교만하였습나다.

“...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8절)

천하에 바벨론 백성만큼 우쭐한 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였습나다. 또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거위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까지 업신여겼습나다. 그러니 자연히 생활도 교만해졌습나다.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나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생활도 교만해진 것입나다.

(3) 말이 교만하였습나다.

“...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잉여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8절)

책대로, 바벨론 여자들은 과부될 염려가 없었다 하여 호언장담을 합니다. 남편은 보따리를 많이 먹어서 몸이 튼튼하고 새벽이 당당하여 가는 데마다 대접만 받고 사나와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 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물론, 자식을 잉여버리고 울 염려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식에

게 좋은 음식을 잘 먹여 영양이 충분하고 적당하게 훈련을 시켜서 몸이 튼튼하여 병들지 않고 또 바벨론은 다른 나라와 전쟁한 하면 상대방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니가 전쟁에서 자식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나다.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나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나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으므로” (10절)

바벨론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악한 일을 계획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최고의 취미로 삼던 백성입나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편 것을 하고 남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자가 있습나다. 죄를 한 번 범하면 양심이 아프고, 두 번 범하면 조급 아프고, 세 번 열 번 범하면 뉘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범죄를 취미로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악을 행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행한 것이 아니라 취미로 하였습나다. 취미로 악을 행하고 취미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 죽는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잔인하였습나다. 자지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죄의 그들을 죽여 버리는 잔인한 죄를 범하였습나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의 머리가 천재라고 자랑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한 날에 갑자기 이를 갚으신대 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네와는 비교 할 나라가 없다고 교만하였습나다.

(2) 바벨론은 무지하였습나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과일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11절)

바벨론은 자기네의 멸망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시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피하는 법도 알지 못하고 지만 살았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미련합니다. 인간의 불의한 권세와 재산은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의지하거나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약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사탄의 눈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나다. 바벨론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을 몰라서 멸망하였습나다.

2. 홀연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생활이 잔인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아, 내 말을 좀 들어 보아라”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1) 한 날에 홀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나다

“한 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9절)

“한 날”이란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여러 날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려면 세계 연합군을 조직하여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면 이들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도 ‘홀연히’ 될 것이니 자다가 박락을 맞듯이 임할 것입나다. 한 날에 홀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려서 과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자식이 아무리 많고 몸이 튼튼하였어도 원수의 칼에 죽고 자기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부려 먹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아들들 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잡혀갈 것입나다. 또 바벨론 여인들의 남편들은 너무 교만하고 잔인하였습나니까 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여 죽게 되고 사형집행을 당하기도 하여 모두 죽게 될 것입나다.

(2)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나다

“보라 그들은 조개 같이서 불에 타리라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운데도 할 솜이 아니요 그 열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4절)

밥을 끓여 먹을 정도의 불도 아니고 추위를 면할 정도의 불도 아니고 육신과 영혼을 모두 태우는 지옥불입니다. 심판의 불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바벨론의 헛된 노력

(1) 술잔의 노력이 허사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젊어서 힘이 찼던 전인과 많은 사물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려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겠는지” (12절)

마차에 부축을 붙이고 물에도 대문 간에도 우장에도 부축을 붙이고 몸에는 보호신을 만들어 지니고 날이거라도 그

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고도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13절)

바벨론은 우상숭배가 굉장하였는데 밤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칩니다. 매달 초하루면 하늘을 살피며 점을 치는 한 달 동안의 운수를 보았습나다. 또 어려서부터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진언이라는 주문을 외웁니다. 바벨론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그치 못한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전쟁으로 너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가고 네 남편이 볼들러 가서 고문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에 점을 치고 주문을 외워 보아라. 환난을 면하고 건짐을 받겠는 나? 어디 한 번 헤보아라”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나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바벨론이 회개하였으면 좋았겠으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나다.

(2) 친구를 찾아가도 허사라고 하였습나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할 것 무려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所向)대로 유랑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15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귀신을 찾아 주문을 외우고 점을 치고 너희와 무하던 사람들을 찾아서 좀 살려 달라고 하여 보아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살려 줄 것 같으니 너희가 찾아가기 전에 그들이 미리 면죄사절을 할 것이다” 친구가 많다고 좋아 보여도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 얼굴을 돌리고 도와 주지 않습나다.

4. 결 론

바벨론은 죄를 범하다가 하룻밤에 망하였습나다. 이를 당한에 망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망하였습나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개회하였던데 망하지 않았는데도 망하지 못하여 망하였습나다. 성도는 불의한 권세를 얻으려 하거나 부정한 재물을 탐치려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권세는 남을 망치고 자기도 망칩니다. 또 남의 눈물과 피가 묻은 불의한 돈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권세를 의지하거나 무시취하지 말고 부정한 재물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



김성록 목사

흠어진 성도들 (사도행전 8: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모였을 때 흠어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매주일 이렇게 모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경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수많은 성도들은 사방으로 흠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집으로, 어떤 성도는 가족을 만나러, 혹은 곤경에 처한 자를 심방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삶의 현장 속에 흠어져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잘 알고 있는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중으로서 너무나 밝게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세상에 흠어져 있을 때에도 그러할까요?

성도는 달라야

사도행전 8장은 초대 교회의 시작을 보여 줍니다. 이 처음 교회는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행 2:1). 바로 이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모든 성도를 위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인간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순간이었고, 성령이 임하는 자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임하여 거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때에 성도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 기이하여” “말하고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행 2:7)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 당장을 벗어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적 싸움터인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도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에 경이로운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흠어져 복음을 전할새

초대 교회 교인들은 대학로에 인쇄 팸플이 흠어자가 있었습니다(행 8:1-2). 그들은 불신자들의 광포한 적대감 때문에 예수살렘을 벗어나 팸플이를 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것은 이름과 기복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팸플이를 흠어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흠어진 사

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4절). 이들은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살렘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각자 흠어져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지냈습니까? 특히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 교회 교인들은 핍박으로 인해

더욱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일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 서로를 향해 비판과 원망의 손가락을 내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런 비판은 성도들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갈취해 가는 원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흠어져 있을 때 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마르 행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로마 정부와 교황이 함께 동지했던 시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명백히 보여 줍니다. 교회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닙니까?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제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은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흠어질 것입니다. 이제 흠어지면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일상 생활의 고달픔과 역경을 놓고 신세한탄하면서 한숨을 쉬고 계시겠습니까? 동료 성도들을 혐오했고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종교와 경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한껏 목청을 높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이는 때에 따라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이는 씨를 경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씨앗을 추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매일 우리 안에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복음을 위해 동물을 바쳐십시오. 저주와 비판과 불평을 거두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 오셨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사랑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까? 당신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가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도록 하셨습니다(마 28:18-20).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붙여주시고 주시고 계십니다(행 1:8). 저는 충현교회의 첫번째 목욕가 신령한 예배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진실한 성도는 흠어져 있는 동안에도 예배와 복음 전파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

우리도 초대 교회처럼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진실한 성도는 흠어져 있는 동안에도 예배와 복음 전파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꽃기는 중에도 고통스러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상황은 이런 저런 것들에 관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만한 형편이었습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당하게 된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보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희생적인 봉사도 인해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탄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랑을 베풀 대가로 오히려 미움과 배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심에 대해 분개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사람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 만한 모든 합당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들은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인간의 정치는 피해야

초대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닥은 곤란과 역경을 보면 시 지도자들의 허를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을 향해 설교가 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행동도

정치적이 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는 사람의 일에 담긴 선동적인 말로 전락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구별하셨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요 18:36).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흠어져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가진 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땅 아래든지 하늘 아래든지

고등부 / 대학부

돌로스란? 어린 중들의 모임

송민진(고등부 2학년)

다락방 4층. 이곳은 학생회를 비롯한 약 10여개에 달하는 고등부 소그룹들의 동지료,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모인 지체들의 열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다락방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남몰래 비전 7000을 꿈꾸는 이들의 모임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돌로스 모임이다. '주님의 품'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다른 다락방 식구들과는 달리 교회가 아닌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르는 학교를 무대로 한 주간의 삶을 쫓아가고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현재 21개 학교에 결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들어 새로이 단합한 99년도 돌로스의 출범과 함께 장기 결석자들과 돌로스 미결석 학교들을 위해 매월 둘째주에 돌로스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지 않아 새롭게 단합한 총현 고등부 홈페이지에도 돌로스의 홍보와 아울러 작은 모임방 마련을 기쁘게 중이기로 하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열의와 정성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며 또한 전도를 통해 서로 교제하며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힘든 일상을 주님 안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 돌로스에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이 주어졌다. 고등부의 비전 7000 실현을 위해,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고등부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종, 돌로스임을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 소중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들은 주님께 간구하며 새로이 시작될 한 주간의 구별된 삶을 계획한다.



고등부에는 많은 돌로스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돌로스는 바로 저희 '은광 돌로스'입니다. 교회 주님의 여학생들의 대부분이 은광여고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광 돌로스는 93년에 결성되었고 현재 회원은 약 60여명입니다. 은광 돌로스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운동장 등나무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10명 안팎의 회원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매주 모아서 후배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다독여 주는 3학년 선배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은광 돌로스

이마리아(고등부 2학년)

다. 정기적인 모임 덕분에 돌로스 회원들의 결속력이 강하고 선후배 관계도 돈독합니다. 또한 1년에 2번씩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친교회도 갖습니다.

은광 돌로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전도'입니다. 지난번 4월 25일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50여명을 인도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돌로스 회원 모두 기도도 준비하고 총동원 전도주일 전날 학교 앞에서 전도지와 책갈피를 나누어 주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총동원 주일과 코이노니아 밤에도 많은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소금으로 빛으로'에 나온 은광 돌로스 회지를 나누어 주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고요 합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도 준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은광 돌로스 모임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회원 각자는 고등부에서 나누어 준 전도지의 만화를 토대로 자신의 구원 사역을 간단히 말해 주고 코이노니아 밤에 인도하려 합니다. 또한 코이노니아 밤에서 특별한 중창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있을 총동원주일에 많은 친구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와 나다니엘을 데려온 안드레처럼... 주님께 이 아름다운 계획을 온전히 지킵시다. 주님 있는 은광 돌로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선교와 대학부

이성진(대학부 5학년)

정보와 시대라고 하여 컴퓨터, 그것도 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세계가 하나로 묶여 인터넷(Internet)이라고 불리는 컴퓨터의 집합체가 점점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고 그것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의견 표출 및 네트워킹 상의 많은 사람들과 편지(이메일)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다. 화상 및 음성 등을 포함한다)를 주고 받는다. 즉 수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개인이 소화해 내며 창출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교회들도 몇 안 되는 인터넷 속의 유저(user·사용자)들의 선교를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내며 '주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외의 많은 교회들도 불과 1, 2년 전에는 꿈꾸지 못한 인터넷 선교를 준비하며 실제로 화상을 통한 미도 선교나 목회자와의 인터넷 상담 등 집에서는 접하기 힘든 교회의 모습들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대학부도 인터넷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청년부들은 인터넷 선교의 필요성,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힘든 오지나 해외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방학 때에만 가능했던 단기선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화의 핵심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복하며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대학부 회원들이 인터넷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동원될 기도로 소망한다. 그러면 주님을 접하기 힘들었던 많은 잃은 양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 옆 영화관〉 사역을 하고 나서

양성민(대학부 5학년)

현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돈이나 권력을 꼽을 수도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지속적인, 그리고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단연 대중문화와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힘은 막강하다.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문화가 있는 문화에 그런대 그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문화가 하나라는 뜻에 반하는 문화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듯, 모든 하나님의 의인이라 불리우며 도 타락한 문화 속에서 외로운 심령을 살아가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아프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주조(酒造)문화, 각종 대중매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뿌려지는 성적 타락의 현실, 자신의 과실을 위해 비싼 것, 유명한 상표만 찾는 과소비 문화, 이러한 것들 속에서 '민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과 목숨을 제물로 내지 못한 채 교회와 사회를 이분(二分)하고 문화를 좌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문화의 가치중립적 측면을 강조

무엇보다도 세속문화를 수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올바른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좌악된 문화에 맞서 싸워 하나님 뜻에 맞도록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 하나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좌악된 대중문화 속에서 해락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부에는 '문화사역'을 맡

을바른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좌악된 문화에 맞서 싸워 하나님 뜻에 맞도록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지.

당하기 위한 소그룹들이 결성되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얼마전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소그룹인 꿈지기와 기독교 미술에 대해 연구하는 소그룹인 뉴 크리에이터(New Creator)가 미술에 걸쳐 세미나 형식의 문화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강의를 통해 올바른 기독교 문화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미술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성화나 성야, 혹은 기독교 소재의 작품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화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둘째날부터 넷째날까지는 영화, 미술, 음악,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것들을 직접 접하면서 그 것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

꾸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족한 준비로 이끌어 나간 사역이었지만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했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인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문화명령 또한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말 교회의 모퉁이들처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모퉁이들이 교회와 모든 부분을 지탱해 가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액장학생 신앙간증

젊은 날 드리는 나의 고백



장상원
(가브릴영양대,
총원생성증장단)

늘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고 있어 하시며 훈련시켜 주셔서 나를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젊은 날 허락하신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소석장학생 후보생 훈련을 통해 많은 감사의 제복들을 주셨습니다. 인상깊었던 위임목사님과의 만남의 시간, 자신의 제산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보여 주신 사남을 찾아 필드신, 금요일을 나는 밤 함께 모여 드렸던 기도회 시간, 존도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 ... 등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되어왔던 구체적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공부하는 자의 행복



옌태산(대학부)

충현 소석 장학생 후보생 훈련이 4월초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지막 학과이론, 준비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훈련 계획을 듣고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엇이 우선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훈련 과정에 포함된 하기전도사역과 대학원 특차시험 준비 기간이 겹쳐서 어떻게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기도를 한 후 용기를 내어 대학원 특차시험을 포기하고 춘천소년원으로 여름성경학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들을 예비해 두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까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리더로 공동체를 섬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낮아짐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장래를 바라보며 꿈을 꿀 때 내게 무슨 든든한 벽이 있나 싶은데 유일한 나의 후원자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큰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가장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젊은 나 드렸던 나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가장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학의 길을 떠날 때나 연주자로서 무대에 서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영혼 구원의 절박함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김복을 집사님을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병중으로 천국입문 양성을 위해 자신의 전신선을 장학헌금으로 내시고 다룬 여름날 밤경고와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모숨을 보았습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우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늘 고민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을 뵈고, 제가 가졌던 안이한 생각과 마음을 여지없이 바꿨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보다는 나 자신의 일에 더욱 민감했던 요나 같은 저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공부한다는 두려움과 거북한 부담감이 더욱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다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정안나(대학부)

전액장학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생각은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장학생 후보로 소개하던 그 모습을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아무것도 나타낼 없었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제 마음을 '하나님에 의뢰하고 어린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귀한 음성이 위로했고 그 자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 없음을 감사하는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의 훈련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젊은이와 여러 선생님들과 장로님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귀한 기도제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정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오지명

(실로암·벨렐영양대,
브니엘여성증장단 부지도)

힘도 없고 약한 나, 지혜도 없는 나, 세상에서 저처럼 작은 나, 그렇지만 주님은 날 기억하셨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나"는 진령히 내가 광야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

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포와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민감해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임을 2년 동안 깨닫았습니다.

이런 배운 훈련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다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 ...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노래를 말씀에 나는 울고 또 울어 했습니다. 지난 날의 나의 세상 욕심을 위해 주님을 이용했던 내게 광야길을 위해 주님을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기억하시어 도우려 사용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리새인이자 때나 팔아치워진 자들을 면제 내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바리새의 면제 내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충현장학생에서 주님 사랑하는 피아니스트로
최희연 성도와 함께



1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수혜를 받은 귀국한 최희연 성도(32세, 10교구, 서울음대 전임강사)는 금요 집회 예배당에 앉아 후배증장단(벨렐영성)이 부르는 찬양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 맺는 찬양집회, 줄, 콩고, 손수건 목소리도

드러지는 후배들의 찬양에 마음 가득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희연 성도는 1981년 가을 중학교 2학년 무렵,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아버지의 인도로 충현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4월부터 시작된 피아노와 함께 주, 줄, 고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은 중앙공부에서 우승했고, 부상으로 받은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했다. 어머니의 기도에도 따른 것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선생님의 권고를 따라 미국으로 독일 유학길(베를린음대 고교연주자과정)에 올랐다. 이 때, 유학생활 초기 3년 동안은 충현장학금을 통해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인디애나음대 고교연주자과정)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 줄·콩고 등 신적 교회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 있다면 ...

최희연: 여름수련회 때인데, 제가 워낙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서(사실은 충현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동료들 틈에 끼는 것이 쉽지 않았음), 목사님, 전도사님(안석철, 남정주) 보시기에 안 좋았나봐요? 그 때, 저를 억지로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시켰는데, 충고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회개했는지 몰라요. 수련회에 갈 때에는 뻔뻔한 배수였는데, 집에 올 때는 잘 잤던 배수가 된 것 같았어요. 마치 언니같이 대해 주셨던 손병희 선생님 기억

이 많아요.

— 유학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

최희연: 팔이 굳는 병에 걸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피아노보다 더 이상 못 치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92년도였는데, 한국에 잠시 나와서 기도하다가 김경인 목사님을 만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김성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내려놓으라'는 말씀과 기도로 치료받았어요. 그 후로 가끔씩은 중세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곧 괜찮아져요. 참도 많이 쉬고 몸도 많이 마신답니다.

— 후배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최희연: 제가 뒤 특별히 말한 만리까지 없어서 ...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봐도, 개관하기 전 도이는 것이 없으면 좋았어요.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부닥드리고 싶어요. — 감사합니다.

지체동 소식

영아부

‘땅을 정복하라’

지난 주일 ‘땅을 정복하라’란 제목으로 한영준 전도 사남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산, 들, 강, 바다 등)을 열매, 야채들이 훼손하지 말며 보호하고 아가들에게도 만지시 가르칠 것을 당부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자고 하셨다.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주일을 꼭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일에 가족이 산과 들을 찾는 일 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전하셨다. (송해경 통신원)

유지부

‘하나님을 높여요’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이제 곧 가을이 온대요. 이렇게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지난 주일 유지부는 ‘하나님을 높여요’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흥해를 가르키는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을 정말 높이고 성가차웠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일컫는 자가 되지 않았다고 기도했답니다. 이번 달에는 심방의 달이에요.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는 심방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유리 통신원)

유년부

9월은 심방의 달

9월을 학생심방기간으로 정하여 학생심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주에는 생지처 주관으로 ‘심방지침서’를 마련하여 심방의 정의와 목적, 유의사항, 사전준비 사항에 관한 설명회와 교사들의 영적 무장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심방시 예배순서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어 심방 경험에 없는 신입 교사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었고 심방에 부담을 가졌던 교사들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심방기간을 통하여 어린 양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장기 결석생의 결석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여 100% 출석에 도전하는, 발전하는 유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청찬합시다

초등부에서는 매주일 아침 9시에 교사 기도회가 있다. 기도회가 끝나면 매주일 선생님 한분의 돌이키면서 청찬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 청찬받은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을 추천해서 청찬하는 순서입니다. 별해 한 4개월을 되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청찬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찬은 혼자 생각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청찬하는 것을 듣거나 보다 다음에 청찬할 선생님을 추천해서 청찬받으 세 번을 친 다음에 ‘청찬 하면서 격려를 해 준다’입니다. 우리 사비에 청찬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 청찬하면서 시작하면 기쁘고 좋고 또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리라 생각합니다. 초등부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청찬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부

교사 연구수업 실시

지난 주일 예배 후, 분반공부를 마치고 교사 연구수업이 있었다. 이번 연구수업은 15반 남준진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다. 15반의 분반공부가 끝난 후에는 분반공부에 대한 토의와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고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분반공부를 모색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구수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분반공부를 다시 한번 점검 및 보완을 하고 더 좋은 선생님이 훈련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또한 처음 교사 직분을 맡게 되는 젊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된다. (김범진 통신원)

중등2부

9월 교사 금식기도 실시

9월 한달을 학생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아침 한 끼 금식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먼저 이번 한주간은 각자 맡은 반의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다. 교사들은 이번 금식기도를 통하여 자신은 물론 학생들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회복의 달 9월을 맞이하여 교사들은 금식기도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자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손은경 통신원)

사랑부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1988년 9월 10일 총천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던 사랑부가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시간에는 기념예배를 드리고 12시 30분부터 30분간 분당 앞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하러 합니다. 어떻게 말로 감사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사랑부를 위해서 눈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눈물 어린 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교사 중에는 사랑부가 개설 되면서부터 봉사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일을 모아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부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이 변화한 사랑부 외적 환경뿐 아닌 우리 학생들의 영과 육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활짝 열린 저의 사랑부에 오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바라보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천천히 한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정예자 통신원)

총헌복지관

자율봉사자 모집

활동장소: 정신지체인 작업 지도 및 주말 오후 프로 그램 지도 등
활동시간: 주 1회, 약 3시간
자격: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성도
문의: 총헌복지관 (565-7564)

서울 기동단 전도집회를 다녀와서

“나를 보내 주소서, 내가 가리이다”

정 미 란(15교과, 경찰전도회 총장단)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땅에 벗어 버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창단과 함께 부르기 시작한 예배 전 찬양은 강단을 가득 메운 전·외경들의 굳게 다문 입술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찬양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몇 곡의 찬양과 회향 강도님의 기도, 20분이 넘지 않는 짧은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미약한 우리 앞에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후 결산자 카드를 받아드는 순간 민수기 14장 9절의 “그들은 우리의 밭”이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한 우리가 손을 들고, 또다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머뭇거리며 손을 드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결산자 카드와 펜을 쥐어 주는 순간, 찬송가 262장의 ‘이대라, 이대라’ 주의 긍휼을 받아 그때 이대라 지금 주께 나아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는 찬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말씀이며 드는 그들의 손이었지만 확신에 찬 노동자들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가곡을 떠나 군복무 중인 전·외경들과 함께하는 예배때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방문하였음을 후회하곤 합니다. 특히 이번 전도집회에 민기로 결집한 87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더 일찍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직까지 우리가 전할 곳이 많이 있을진대 나를 보내 주소서, 내가 가리이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전도 집회시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결집하게 되는데 이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할 때 봉사할 일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러 전 경향전도회에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더지기 위한 차고 넘치고 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제정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더지기 위한 15만 경향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 · 불 · 바 · 문 · 한 · 마 · 디

“잘 있었어?”

고등부 교사

분당 앞을 천구들과 떠돌며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목사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잘 있었어?” 하시는 순간 나는 눈물이 뿜어 (강동)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의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시 때였다. 목사님과 악수를 나눈 그때부터 10년 훨씬 전의 일이다.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야 했었고, 교회에서도 수련회를 가야 했던 어느 날, 두 곳에 다 가지 않고 친구와 보낸 일은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전도사님께서는 수련회에 가자고 권유하셨고 나는 그런 전도사님의 얼굴을 한번도 쳐다보지 않고(이 일도 또한 나를 괴롭혔다. 굉장히 괴로웠던 처사였다), 학교에서 가는 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염서를 집으로 보내셨는데 그 내용은 수련회에 갈라 다녀왔다는 것이었다. 이후 어찌할꼬. 이를 계기로 회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그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수련회만 되면 괴롭고 두꺼운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던하다가 스승의 날 목사님께서 ‘저는 지금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예전에 ...’ 이렇게 편지를 써 드리고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나왔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분당 앞에서 목사님을 만난 것이다. 그때 목사님의 “잘 있었어?”라는 한 마디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 하시는 듯했고 따뜻한 목사님의 손은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손인 듯하여 너무 기뻐했다.

언제나 오셨던 전도사님으로 기억된다. “여전히 변함없이 전도사님, 늘 한결 같으신 목사님의 모습만 보아도 힘이 됩니다. 이제는 그 일이 나에게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 목·장칼럼

압 령

1. 정기 제직회
· 일시: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본당
2. 충현동산 관리비 납부 안내
· 관리비: 1기당 3만원
· 접수처: 사무국
3. 에바다부 수확교실 안내
· 개강: 9월 19일
· 신청 및 문의: 에바다부

모임

- | | |
|---------------------------------|----|
| 1. 정로 하오세도(正路何世道) | 5 |
| 일시: 11월(월) 세제기(世濟) 후 | 6 |
| 장소: 교곡산 100호 | 6 |
| 2. 만수정(萬壽亭) 세제기(世濟) 후 | 6 |
| 일시: 11월(월) 세제기(世濟) 후 | 7 |
| 장소: 교곡산 100호 | 7 |
| 3. 주일암(周日岩) 세제기(世濟) 후 | 7 |
| 일시: 오후 15:00 | 8 |
| 장소: 전도리(田頭里) 관혜회(觀海會) | 8 |
| 일시: 오후 15:30 | 8 |
| 장소: 전도리(田頭里) 40호 | 8 |
| 4. 봉사암(鳳沙岩) 세제기(世濟) 후 | 9 |
| 일시: 오후 15:30 | 9 |
| 장소: 전도리(田頭里) 50호 | 9 |
| 5. 건국위원회 회의 | 10 |
| 일시: 오후 15:30 | 10 |
| 장소: 전도리(田頭里) 50호 | 10 |
| 6. 낙산(洛山) 회포(懷浦) 부호(府) 관혜회(觀海會) | 11 |
| 일시: 오후 15:00 | 11 |
| 장소: 랑포촌(浪浦村) | 11 |
| 7. 경향(京香) 관혜회(觀海會) | 12 |
| 일시: 오후 15:00 | 12 |
| 장소: 매곡(梅谷) 가를 | 12 |
| 8. 학원(學園) 관혜회(觀海會) | 13 |
| 일시: 오후 12:30 | 13 |
| 장소: 매곡(梅谷) 110호 | 13 |
| 9. 민수정(民水亭) 전호(田浩) 관혜회(觀海會) | 14 |
| 일시: 오후 15:30 | 14 |
| 장소: 교곡산 314호 | 14 |
| 10. 군사(軍士) 관혜회(觀海會) | 15 |
| 일시: 11월(월) 세제기(世濟) 후 | 15 |
| 장소: 사남부(沙南府) | 15 |

남녀전도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2. 김윤서(1600)간보초본
3. 김윤서(1600)간강초본, 김사,
정자 강씨의 아들, 1920
4. 최인 회(1610)초본, 1920
주관 권사의 딸, 11(교구)
16(학) 12(문) 12(문) 12(문)
5. 강삼중(강2)초본 20, 윤정
권사의 아들, 22(교구) 20(문)
양윤여의 아들, 태백초 20(교구), 17(문) 13(문) 30(문)
6. 이삼강(문)이재의 안수,
사, 김윤서 권사의 아들,
교구)와 정외신 양(정)
제, 이정자 권의 딸, 1920
/18(문) 13(문) 13(문) 13(문)
7. 조창희(문)조은초본 사, 박
규 씨의 아들과 황신외
(황)원정 안수집사, 김경
집사의 딸, 10(교구) / 18(문)
8. (문) 14(문) 신대배(배)
이윤조(문)김정씨 4도.
1920
9. 공윤수(문)공윤경 4도.
계사 집사의 딸, 1(교구)
김정외 양(이)원정 씨,
오 씨의 딸 / 18(문)
14:30 삼각지 국왕(학)

별 세

1. **고기수 성도**
(양영숙 집사 남편, 17교구 안구역) / 2월 별세, 4월 장례
2. **이갑희 권사**
(김경춘 성도 모친, 이영성도 시모, 14교구 독산역) / 5월 별세, 7월 장례
3. **이옥연 성도**
(이상한 목사 모친, 3교구 은주역) / 7월 별세, 10월 장례
4. **이순옥 집사**
(심해숙 집사, 심인식 성도 모친, 이송철 성도, 이용성도 장모, 2교구 한양2역) / 8월 별세, 10월 장례

결혼

1. **진재운**군(진재욱 집사의 동생, 19교구)과 **토모코** 양(김보일 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출현 중보의 참

①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wig게 하소서

②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이 더욱 겸손하고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장학

③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교구영성
후려를 통해 축현의 성도들이 성령

으로 새로워져 주님의 일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④ 우리 교회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온전 찬양과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찬양

⑤ 우리 교회가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오찬오 천라하소서

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추우 허락하십시오.

㉔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⑧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연차	성명	교구	소속교회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교회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교회	인도지	번호
1238	이경호	19	청진1부	1251	오민주	19	대학부	순제2부(14)	1264	배민수	19	대학부	연진구(7)		
1239	최희경	1	청진1부	1252	박수민	19	대학부	전보순(15)	1265	최희봉	19	대학부	청진1부	이진우(1)	
1240	황화구	4	청진1부	1253	박선영	19	대학부		1266	박민기	15	백로	이아나(9)		
1241	정승호	14	청진2부	1254	박현숙	19	예배다		1267	이명숙	13	청진2부	도수자(8)		
1242	수병술	11	청진2부	1255	이명희	19	예배다	박진기(11)	1268	방미영	19	고신대			
1243	김정현	13	청진2부	1256	김정현	19	예배다	나관영(7)	1269	김정현	19	대학부			
1244	김진식	13	청진2부	1257	정병호	9	사랑부		1270	정영숙	19	대학부			
1245	이해연	11	청진2부	1258	차지환	5	청진1부		1271	한정기	19	대학부	한보경(5)		
1246	박순진	15	청진2부	1259	배해수	19	대학부		1272	홍서진	19	대학부	황정현(3)		
1247	이진민	11	청진2부	1260	이상희	19	대학부		1273	이경희	19	대학부			
1248	김진현	16	청진2부	1261	송수주	19	대학부		1274	강상진	19	대학부	박수석(19)		
1249	정희나	19	청진1부	1262	장금진	19	충동부		1275	김정애	19	대학부			
1250	배윤경	19	청진1부	1263	김진기	19	대학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 자

무화과 열매

화 엽 익(장르 4교구장)

고 하여 인기가 있다
고 한다. 열대성 나
무이기에 우리 나
라에서는 남부지
방에서만 재배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서해안 지방에
서도 재배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을 들으면서 예수님
의 무화과나무 사건이
생각되어진다. 열매는
제들과도 예루살렘을
다가 시정하지 않아 두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매가 없어 언저 못하였
에는 그 나무가 말라 죽
자들이 이상하여 왜 이
고 물었다. 참으로 믿



는 마지막 말을 유언한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다. 이는 전도를 명하신 것이 아닌가.

열마 전 전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소중하게 갖고 다니는 수첩을 보았다. 그 속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100명이 적혀 있었다. 태애기를 낳으려면 애기를 낳는 단순한 원리를 그 집사님이 소중하게 있다.

매월께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 태신자를 많이 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로목사 김창익

■ 위익몰사 김성관

■ 식물자료

유명성	김희철	조순근	임호조
출생연월	1927년 1월	1927년 1월	1927년 1월
마침표	김희생	김경철	유기건
수출부품	김희생	김희생	유기건
수출품	노광현	노광현	정하우
중대부	노광현	노광현	정하우
이병하	노광현	노광현	박승준
김희생	노광현	노광현	박승준
업권서	노광현	노광현	김도용
업권서	노광현	노광현	김도용
오정현	노광현	노광현	남선우
서동석	노광현	노광현	김영길
초대부	노광현	노광현	김영길
문용구	노광현	노광현	허두길
문용구	노광현	노광현	허두길
김천제	노광현	노광현	김재명
김천제	노광현	노광현	김재명
박영식	노광현	노광현	문경수
박영식	노광현	노광현	문경수
이종국	노광현	노광현	이하영
이종국	노광현	노광현	이하영
박민건	노광현	노광현	안종옥
박민건	노광현	노광현	안종옥
이인상	노광현	노광현	이종식
이인상	노광현	노광현	이종식
박기호	노광현	노광현	전홍용
박기호	노광현	노광현	전홍용
성인장	노광현	노광현	최영일
성인장	노광현	노광현	최영일
전종필	노광현	노광현	김준권
전종필	노광현	노광현	김준권
신철	노광현	노광현	신필근
신철	노광현	노광현	신필근
김영수	노광현	노광현	신필근
김영수	노광현	노광현	신필근

■ 부모

이흥성	김희수	이대명	박경환	김동석
정원진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장갑진
김철민	조준환	김동하	김동하	차병준
김태영	김민식	권현진	서광진	이승학
김병재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혁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고	안석열	김용인	정은호
	이동태	유현일	수민	키나
■ 감도사	박기진	엄현일		
■ 어전사				
정영인	현경남	장영자	임태주	김경자
배옥인	최지혜	손희희	송창학	신동자
윤은우	오정숙	김기원	김유은	한영준
김영숙	김복순	김민식	재선하	
■ 교정전도사	박영덕			

매배 안내

구분	시간	참소
주일 예배	I 오후 7:00	본당
	II 오후 9:00	본당
	III 오후 11:00 (수신, 퇴원, 병실석 예배)	본당
	IV 오후 10:00(퇴원, 병실석 예배)	본당
	V 오후 3:00 (영양실, 퇴원, 병실석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북쪽정가사실(Casa Hall)
천년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1:00전 11:00 (오후 7:30)	본당
금요일 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후 4:00	본당